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국내 체류 외국인,
장애 등록의 벽은 여전히 높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를 중심으로 본, 최근 5년 현황

2020~2024년 장애인 등록현황을 유형·연령·장애유형·지역별로 분석,
국적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차별에 놓인 현실





개요·배경

이중 차별, 더 커지는 이유

- 늘어나는 장기체류 외국인, 여전한 장애인복지 장벽

- 장기체류(90일 이상) 외국인:
  161만 명(2020) → 204만 명(2024) +21%
- 장애인 등록은 체류자격에 따라 제한적 허용
- 장애인 등록을 하더라도, 예산 등의 이유로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법·제도와 체류자격

누구나 되는 건 아니다

- 장애인 등록 가능한 체류자격은 한정적



- 2012년 법 개정, 2013년 시행
  → 외국인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 (일부)
- 2017년 난민 인정자까지 확대
- 2024년 기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 인구:
  905,808명 (2020년 대비 +14만 명)
- 2024년 장기체류 외국인 204만 명 중, 약 44%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



등록현황 (인구 특성·장애 유형)

누가, 어떤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나?

- 아동·고령, 청각·발달장애 중심

- 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 4,354명(2020) → 8,238명(2024), 연평균 +17%
- 연령별: 10대 +57%, 70대 +32%
- 장애 유형: 청각장애 3,293명(+28.6%), 자폐성 126명(+46.9%)



주요 증가 특징

구분	2020	2024	증가율
10대	26	160	+57%
70대	630	1,924	+32%
청각장애	1,204	3,293	+28.6%
자폐성	27	126	+46.9%



지역별 현황

수도권에 80% 집중

- 서울 · 경기 남서부에 몰린 장애인 등록

- 외국 국적 등록장애인 **10명** 중 **8명** 수도권 거주 (2024년, 8,238명 기준)
- 상위 **10개** 지역 = 전체 **46%**



상위 5개 지역 (2024)

순위	지역	등록자 수 (명)	비율
1	서울 구로구	583	7.1%
2	서울 영등포구	519	6.3%
3	경기 안산시	488	5.9%
4	경기 부천시	468	5.7%
5	경기 수원시	381	4.6%

※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외국인 거주인구가 많으며, 자녀의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 외국 국적 장애인 수치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장애 등록률 격차·미등록 추정

내국인 5% vs 외국인 1%

-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간극

- 내국인 장애 등록 비율: 약 5.1%
- 외국인 장애 등록 비율:
  0.57%(2020) → 0.91%(2024)
- 미등록 장애 인구 추정치: 약 3만 8천 명

※ 내국인 장애 등록률을 단순 적용하여, 입국 시점의 건강 상태나 장애 유무 등을 고려하지 않음. 하나의 참고 수치로만 해석해야 하며,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별도 실태조사가 필요



등록률 비교

구분	2020	2024	연평균 증가율
내국인	5.07%	5.12%	+0.25%
외국인	0.57%	0.91%	+12.41%



결론·시사점

국적과 장애, 이중적 차별을 넘어

- 포용적 복지를 향해

법적 한계
체류자격 제한 + 예산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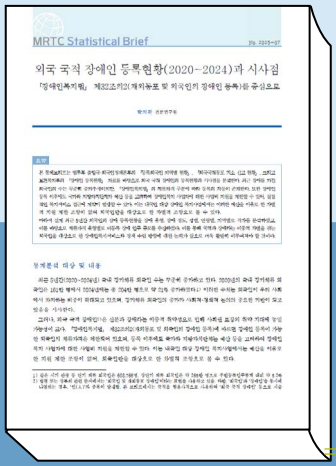
서비스 실태·정책 효과
장애인 등록은 가능해도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후속 연구 필요

개선 과제
① 장애인 등록 대상 체류자격 확대
② 정기적인 실태조사·기초통계 생산
③ 지역 균형적 서비스 체계 강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복지 필요



자세한 연구내용은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mrt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MRTC Statistical Brief

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2020-2024)과 시사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를 중심으로



No.2025-07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외국 국적 장애인 등록현황(2020~2024)과 시사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 발간물 ➔ 이슈/통계/정책브리프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4.php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연구기획·평가팀(02-3788-8037, 8042)